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yness in Korean Preschooler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도현심
교수 박성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Student : Hyun Sim Doh

Professor : Seong Yeon Park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nature of shyness in children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in parents and children. The subjects were 80 triads including fathers,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58.5 months on the average. The par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items about shyness and sociability devised by Cheek & Buss(1981) and the mothers also answered for their children. Identified by teachers,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4 groups based on both their sexes and a quality of shyness(shy/unshy). No sex differences were found throughout the study, so the analysis was made only by their quality of shynes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45% of the shy children had begun to show shyness at 3~3½ and 41% of them showed it the most strongly at 4~5.

2) Birth order and educational experiences(an attendance period at the institutions) were not related to shyness in children.

3) The more and the stronger they experienced stranger anxiety, the more they showed shyness; Shyness and sociability in children were negatively related($r=-.45$) each other, implying that they are likely to be distinct traits.

4) Shyness in children was positively related to shyness in their parents regardless of their sexes, and negatively related to sociability in their mothers.

5) Most of the mothers had negative reactions on shyness in their children and wished them not to be shy.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행동방식에 더욱 커다란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린 시기부터 소극적인 행동 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격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아일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여아 보다는 남아에게 더욱더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흐름에 기인할 것이다. 남아를 가진 부모는 자녀가 소심하고 수줍은 행동을 할 때, 마치 자녀에게 어떤 장애라도 있는 것처럼 걱정을 하기도 한다. 물론, 여아의 부모들 역시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녀의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Buss and Plomin, 1984; Daniels and Plomin, 1985;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and Garcia-Coll, 1984; 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and Johnson, 1988)은 수줍음을 생후 초기 1년 이내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낮가림과 구분하지 않고 정의하여, 이 시기에는 수줍음이 낮가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수줍음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도 낮선 사람에 대한 반응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줍음을 보이는 아동들이 생후 초기에 낮가림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가정해 볼 때, 수줍음을 낮가림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낮가림 경험유무를 근거로 하여, 乳兒期の 낮가림이 幼兒期の 수줍음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수줍음과 낮가림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줍음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유전학적이거나 태내적인 것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Scarr, 1969; Garcia-Coll, Kagan, and Reznick, 1984). 결국 이러한 성질은 타고난 성격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질적인 특성과 상통하는 것이다(Goldsmith, Buss, Plomin, Rothbart, Thomas, Chess, Hinde, and McCall, 1987). 이것은 부모의 기질특성이 아동의 행동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Buss and Plomin, 1984)에서 볼 때, 수줍음 혹은 사회성과 같은 기질특성에 있어서 부모와 아동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행하여지지 않은 실정이며, 국외의 경우에는 Kagan을 비롯한 몇 명의 학자들에 의한 종단적 연구들을 비롯하여, 기질특성과 관련시킨 몇몇 연구들(Buss and Plomin, 1984; Daniels and Plomin, 1985; Hinde, Stevenson-Hinde, and Tamplin, 1985)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 연구로서 어머니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수줍음의 발달추세 및 수줍음과 관련되는 몇 가지 변인들과, 수줍음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성에 따라 살펴보고, 또한 수줍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로써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관련된 연구들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B. 문제의 제기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아동의 수줍음의 연령에 따른 발달추세는 어떠한가?

문제 2. 수줍음은 아동의 출생순위 및 교육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수줍음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행동들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가?

문제 3-1. 수줍음과 낯가림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3-2. 수줍음과 사회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4. 부모의 수줍음과 사회성은 자녀의 수줍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문제 4-1. 부모의 수줍음과 자녀의 수줍음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4-2. 부모의 사회성과 자녀의 수줍음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5. 자녀의 수줍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수줍음의 개념

1. 수줍음의 정의

넓은 의미에서의 수줍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으로서 정의되기도 한다(Pilkonis, 1977a; 1977b). 그러나 Cheek과 Buss(1981)를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좀더 특정한 범위내에서, 수줍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게 되었을 때, 긴장하고, 어색하며 불편한 느낌을 가지며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을 꺼려하는 것. 즉, 수줍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이라기 보다는, 낯설거나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줍은 아동들은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긴장하거나 억제된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여러 학자들은 이상의 수줍음과 같은 행동을 '억제된 행동(inhibited behavior)'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Caspi, Elder, Jr., and Bem, 1988; Garcia-Coll et al., 1984; Kagan, Reznick, and Snidman, 1988).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위축되고 활동을 멈추는 아동들을 '억제된(inhibited)' 집단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아동들을 '억제되지 않은(uninhibited)'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수줍음 또는 억제된 행동이란 우려(apprehension) 또는 위축(withdrawal),

낯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접근하는 데 걸리는 오랜 시간, 어머니에게 매달림, 울음, 흐느낌이나 불안함,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이나 발성, 그리고 놀이의 억제와 같은 행동양상들로 표현된다(Garcia-Coll et al., 1984). 그러나, 실제로 '억제된(inhibited)'이라거나 '억제되지 않은(uninhibited)'이라는 용어는 어느 언어에서나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 양극단적인 의미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위협스러운 경우에는 조심스럽다거나(cautious) 또는 대담하다고(bold) 말하며; 새로운 음식이나 일상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거나(sensitive) 또는 적응력이 있다고(adaptable) 말하고; 사람이나 집단들이 낯선 상황에서는 수줍다거나(shy) 또는 사교적(social)이라고 말한다(Kagan et al., 198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억제된 행동에 속하는 행동들을 수줍음이라는 용어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수줍음에 관련된 변인들

(1) 성차

수줍음의 성차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먼저,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아들이 여아들 보다 수줍은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aziade, Boudreault, Thivierge, Caperaa와 Cote (1984)는 부모의 보고에 의하여, 유아의 접근-회피 행동을 살펴본 결과, 남아들이 여아들 보다 접근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Rothbart(1988)도 여아들이 남아들 보다 새로운 물건에 접근하는 데 더욱더 주저하였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arcia-Coll과 동료들(1984)이 연구대상의 표집과정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를 표집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명시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억제된 행동을 보이는 남아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아들의 경우에 비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억제된 행동을 덜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들(Clarke-Stewart, Umeh, Snow, and Pederson, 1980; Thompson and Lamb, 1983)에 의하면, 여아들은 남아들 보다 다소 더 사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억제된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것은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보다 더 사교적이면서 또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 혹은 억제된 행동과 사회성이 하나의 연속선상의 양극단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Kagan 등의 견해에서는 모순적이지만, 양자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별개의 특성이라고 보는 Buss와 Plomin(1984)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성이 높은 아동들도 수줍음을 보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수줍음의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3~37개월 유아들의 낯선 성인들에 대한 반응에서, 유아들은 성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Plomin and Rowe, 1979). 이와 같은 결과는 Broberg와 동료들(1990)에서도 일치하였다. 이처럼 비일관적인 결과들은 무선표집을 통한 연구로써 확인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연구설계에 따라 일정한 수의 남녀를 표집하였기 때문에 이를 시도할 수가 없었다.

(2) 연령

수줍음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 많은 연구들이 일치하고 있다(Broberg et al., 1990; Kagan et al., 1988). Kagan과 Moss(1962)에 의하면, 낯선 사람들에 대한 억제된 행동은 15여 가지의 유아기 행동들 가운데 훗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3세경에 극도로 억제된 행동을 나타내었던 아동들은 3~6세경의 시기에 또래에 의해 쉽게 지배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위축되기가 쉬웠다. 또한 6~10세경에도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심하였으며, 청년기에 이르러 그러한 남아들은 운동과 기타 남성적인 활동들을 피하였다.

억제된 행동과 억제되지 않은 행동은 유아기를 걸쳐 상당히 지속된다(Kagan et al., 1987). 21개월에 억제되거나 억제되지 않은 두가지 행동 집단으로 구분되었던 유아들은 7세반에도 유의한 정도로 이전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 특히 억제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던 아동들은 억제된 행동을 보였던 아동들 보다 더욱 더 명백히 같은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수줍고 소심하기 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사교적일 것을 격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회화에 의한 변화의 차이는 유전적인 일치성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Hinde et al., 1985).

(3) 출생순위

수줍음을 출생순위와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Snow와 동료들(1981)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들은 억제된 행동의 출생순위에 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억제된 행동은 첫째 보다 둘째 이하가, 억제되지 않은 행동은 둘째 이하 보다 첫째가 더 많이 보였다. 이것은 첫 아이의 경우,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되며, 따라서 불안과 같은 행동적 양상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반면, 둘째 이하의 자녀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고취시키는 자극을 덜 받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수줍음의 유전적 일치성을 고려해볼 때, 출생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한다.

B. 수줍음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

1. 낮가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의 지표로서 흔하게 나타나는 낮가림은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경이 지나면서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거나 피하고, 또는 심할 경우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행동으로서 표현된다(Mussen, Conger, and Kagan, 1979). 이러한 행동은 그 표현되는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를 나타내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차를 '억제된 행동'(Kagan et al., 1984) 혹은 '수줍음'(Daniels and Plomin, 1985)과 같은 행동경향과 동일한 맥락으로 표현하였다.

유아의 낮가림에 대해서는 몇가지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다. 첫째, 인지발달론적 입장에서 볼 때, 유아는 생후 5개월경이 되면서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식별하기 시작하며, 낯선이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는 유아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낮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유아의 지각적인 면보다는 행동발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유아

는 친숙한 사람들을 보면 기쁜 반응을 보이고 따라서 긴장이 사라진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나타날 때는 표현할 적절한 반응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긴장이 증가되어 낯선이를 피하려 들거나, 어머니를 찾고, 심할 때면 울기도 한다. 셋째, 우연성의 이론은 위의 두 가지 설명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서, 유아는 친근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미소를 보고 다정히 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낯선이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낯선이는 유아의 기대와 어긋나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고, 따라서 유아는 경계심이나 불안감을 보일 수가 있다(Fein, 1978).

Kagan 등에 의해 이루어진 종단적 연구들에 의하면, 생후 21개월에 낯선 사람을 피하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이 낯선 사람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 하던 아동들은 4세에 낯선 또래에게도 억제된 행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은 생후 1년 이전에 나타나는 낯가림이 幼兒期의 수줍은 행동으로 연결됨을 암시하였다. 또한, Buss와 Plomin(1984)도 낯가림은 수줍음의 초기 발달적 형태로서 乳兒期에 나타나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높은 불안감과 낮은 사회성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Daniels와 Plomin(1985)은 이러한 낯가림을 특히 '乳兒期 수줍음(infant shyness)' 이라고 개념화하였다.

2. 사회성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성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홀로 있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으로서 정의한다(Cheek and Buss, 1981; Clarke-Stewart et al., 1980; Gifford, 1981). 따라서 사회성이 높은 아동들은 집단 놀이를 더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사적인 생활에서 얻는 유익함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둔다(Buss and Plomin, 1984).

이러한 사회성과 수줍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Kagan 등은 수줍음을 사회성의 한 측면으로 보고, 수줍은 아동은 사회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몇 년에 걸

쳐 행해진 종단연구에서, 수줍은 아동과 대조가 되는 집단을 사회성이 높은 아동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Buss와 Plomin(1984)은 수줍음과 사회성을 각각 구별된 특성으로 취급하였다. 즉, 수줍음과 사회성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성은 타고난 기질특성이고 수줍음은 그 유도체라고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수줍음이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대부분의 수줍은 아동들은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긴장하거나 억제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사회성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수줍음은 불안 및 사회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만, 사회성과 불안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로써 수줍음의 상당한 부분이 불안 및 낮은 사회성의 연합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C. 부모의 수줍음 및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

생의 초기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행동·유전학적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행동의 개인차에 대한 원인론(etiology)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Plomin and Rowe, 1979). 이러한 시점에서 유아기의 수줍음에 대한 최초의 행동유전학적 연구는 Plomin과 Rowe(1979)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은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유아들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만 2세경에 나타나는 수줍음의 개인차는 유전학적인 관련성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친모와 입양모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수줍음을 살펴본 연구(Daniels and Plomin, 1985)에서도 친모의 수줍음과 낮은 사회성이 입양모에 비하여 더욱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행동에 관한 유전적 연구들은(Buss and Plomin, 1973, 1984; Daniels and Plomin, 1985; Plomin, 1986) 수줍음과 사회성이 기질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중요한 차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수줍음에 대한 유전적인 성향은 부모에 의해 전해져내려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수줍은 어머니는 수줍음이라는 기질적 특성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수줍은 자녀를 가질 수가 있으며(Daniels and Plomin, 1985), 사교적인 어머니는 사교적인 자녀를 둘 수가 있다(Stevenson and Lamb, 1979). 여기서 수줍음과 사회성이 다소간의 부적 상관($r = -.30$)이 있음(Cheek and Buss, 1981)을 관련시켜 볼 때, 부모의 수줍음과 사회성 모두는 자녀의 수줍음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수줍음 및 사회성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서초구 B동과 과천시 J동에 위치한 유아원에 다니는 만 5세의 아동들(평균 58.5개월)과 그 부모들이었다. 수줍음이 만 3, 4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한 Buss(1980)에 근거해 볼 때, 수줍음을 타는 아동들이라면 만 5세경에는 대부분이 수줍음을 보일 것이고,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현재의 행동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연령의 아동들이 표집되었다. 각 지역에서 43명과 37명씩 총 80명의 아동이 선정되었으며, 따라서 전체 연구대상자는 80 triads(3인군)이다. <표 1>에서와 같이 대상 아동들은 성별과 수줍음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대상 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일원변량분석결과 각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전체 아동을 합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의 가족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이었으며(86%), 출생순위는 첫째가 46명(57.

<표 1> 성별 및 아동의 특성별 연구대상 아동수

(단위 : 명)

구분	수줍은 아동	수줍지 않은 아동	계
남아	20	20	40
여아	20	20	40
계	40	40	80

<표 2> 대상 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

(N=80; 괄호안은 백분율)

구분		아버지(명)	어머니(명)
연령(세)	25 ~ 29	0(0.0)	2(2.5)
	30 ~ 34	20(25.5)	53(66.3)
	35 ~ 40	46(57.5)	23(28.8)
	40이상	14(17.5)	2(2.5)
교육수준	고등학교	3(3.8)	14(17.5)
	전문대학	1(1.3)	7(8.8)
	대학교	59(73.8)	50(62.5)
	대학원	17(21.3)	9(11.3)
직업	없음	0(0.0)	63(78.8)
	자영상공	10(12.5)	10(12.5)
	회사원	49(61.3)	2(2.5)
	공무원	6(7.5)	1(1.3)
	전문직	13(16.3)	1(1.3)
	기타	2(2.5)	3(3.8)

5%), 둘째가 30명(37.5%), 셋째가 4명(5.0%)이었다. 그리고, 아동이 교육기관에 다니는 기간(교육경험)의 분포를 보면, 6개월~1년은 40명(50%), 1년~1년반은 31명(38.8%), 1년반~2년은 9명(11.2%)이 포함되었다.

B. 측정도구

본 연구의 아동용 측정도구는 Buss와 Plomin(1984)의 EAS중 수줍음 및 사회성에 관한 문항들과, Cheek과 Buss(1981)의 관련 문항들 중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근거로 하여 번안, 사용하였으며, 부모용 측정도구는 Cheek과 Buss(1981)의 수줍음과 사회성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아동용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조사를 위한 문항들과 아동의 수줍음 및 사회성에 관한 21문항(수줍음: 17문항, 사회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수줍은 아동들에게만 해당하는 개방식 질문형태의 5문항이 첨가되었고, 부모용 측정도구는 수줍음 및 사회성에 관련된 각각 9문항과 5문항을 합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줍음 여부에 따른 부모의 집단구분은 수줍음에 관련된 문항들의 평균을 낸 후, 3점을 기준으로 하

여 그 보다 높으면 '수줍은 집단'으로, 그 보다 낮으면 '수줍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부모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극단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1('전혀 그렇지 않다')과 5('매우 그렇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부분 자신의 특성을 3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정확하게 3인 경우들만 제외한다고 해도 집단의 성격이 구분될 수 있다. 사회성에 따른 부모의 집단구분도 수줍음에 따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 전체 부모들의 수줍음 혹은 사회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수줍음 및 사회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괄호안은 표준편차)

구 분	수 쥘 음		사 회 성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아버지	3.3(.234)	2.0(.495)	3.8(.465)	2.3(.353)
어머니	3.3(.250)	2.1(.418)	3.8(.429)	2.3(.360)

각 측정도구들의 문항은 Likert형 척도 방법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는 .70이상으로서, <표 4>와 같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척도의 내용	아동용	아버지용	어머니용
수 쥘 음	.96	.90	.89
사 회 성	.70	.84	.78

C. 표집 및 조사 절차

본 연구의 표집을 위하여 3곳의 유아원에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줍은 아동과 수줍지 않은 아동들에게 질문지를 골고루 분배해 줄 것과 아동이 가져온 질문지에 수줍은 아동을

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 250부의 질문지를 각 유아원에 70~90부씩 나누어 아동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 전달한 결과, 회수된 질문지는 총 162부로서 약 6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들 가운데,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부모의 견해와 교사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8부와, 미완성된 5부의 질문지들을 제외시킨 다음,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문항들 중 첫번째인 '아동은 수줍은 편이다'에 대해 3('보통이다')을 표시하지 않은 질문지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들 가운데 부모들의 특성 표시에 3을 주로 표시한 몇몇 질문지들을 제외시킨 후, <표 1>에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총 8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아동의 수줍음 여부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들의 수줍음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수줍은 아동들은 4.13(표준편차: .335)이었고, 수줍지 않은 아동들은 1.90(표준편차: .18)이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용 측정도구는 어머니에 의해 응답되어졌다. 이것은 Garcia-Coll과 동료들(1984)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가 실험실에서 관찰된 유아의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점에 근거한 것으로서,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예상되어 선택되었다.

D.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어머니의 견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수줍음과 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3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그외에도 일원변량분석, 차이검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수줍음의 발생시기

발 생 시 기	빈 도(명)	백분율(%)
3년 미만	13	32.5
3년~3년 6개월 미만	18	45.0
3년 6개월~4년 미만	7	17.5
4년~5년	2	5.0
계	40	100.0

〈연구문제 1〉 수줍음의 연령에 따른 발달추세

수줍음의 발생시기 및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수줍음을 처음 나타내었던 시기 및 수줍음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대해 개방식 질문을 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발생시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회상은 실제와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강도에 있어서는 더욱 정확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일원변량분석의 결과, 수줍은 아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F=2.260, df=1, p>.05$), 수줍은 남아와 여아의 자료를 합하여 수줍음의 발생시기 및 빈도를 살펴 보았다. 〈표 5〉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줍은 아동들의 45%가 생후 만 3년~3년 6개월에 수줍음을 처음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에 걸쳐 아동들이 수줍음을 가장 많이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의식적인 수줍음이 만 3, 4세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 Buss(1980)의 주장과 유사하였다. 즉, 아동들은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낯선 상황이나 사람들 앞에서 수줍음을 나

〈표 6〉 수줍음의 강도

강 도	빈 도(명)	백분율(%)
3년 이하	1	2.5
3년~3년 6개월 미만	9	22.5
3년 6개월~4년 미만	11	27.5
4년~5년 미만	16	40.5
5년 이상	3	7.5
계	40	100.0

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줍은 아동들 가운데 32.5%에 속하는 아동들이 3년이 되기 이전에 수줍음을 나타내었으며, 더 우기 이들 중 거의 1/2이 첫돌이 되기 전이라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줍음을 나타내는 아동들이 乳兒期에 낮가림을 보인 이래로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거나, 혹은 어머니들이 아동의 낮가림과 수줍음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한편, 아동들이 수줍음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었거나 혹은 나타내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표 6〉에서와 같이 40% 정도의 어머니들이 만 4년~5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시기는 대상아동들의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동이 실제로 이 시기에 수줍음을 가장 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그 시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을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서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만 5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7.5%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대상아동이 별로 없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 경향으로 보아 아동의 수줍음이 만 5세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 출생순위 및 교육경험과 수줍음의 관계

아동들의 출생순위는 첫째, 둘째, 혹은 셋째로 구분되었으며, 아동의 수줍음이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아동의 출생순위는 수줍음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둘째 이하의 아동들이 첫째 아동 보다 수줍음을 더 많이 보였다는 Snow와 동료들(1981)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들이 가정 이외의 외부의 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은 6개월~1년미만부터 1년~1년반미만, 1년

〈표 7〉 출생순위 및 교육경험과 수줍음의 관계

구 분	Chi-Square	자유도	유의도
출생순위	1.48	2	.48
교육경험	3.71	2	.16

반~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교육경험이 수줍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아동의 교육경험도 수줍음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아동의 교육경험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수줍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줍음의 기질적인 일치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아동의 수줍음이 교육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들은 교육기관에 다닌 이후에 아동들의 수줍음이 없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수줍은 아동들 가운데 77.5%의 아동들이 유아원에 다닌 이후로 수줍음을 덜 나타내는 편이라고 보고되었다. 이것은 아동들의 타고난 수줍음이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함을 의미할 수가 있다.

<표 8> 교육기관의 경험으로 인한 수줍음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수줍음의 변화	빈도(명)	백분율(%)
덜하는 편이다	31	77.5
별로 변화가 없다	9	22.5
계	40	100.0

<연구문제 3> 수줍음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1. 낮가림

아동의 성과 특성에 따라 구분된 4집단간의 낮가림의 경험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F=.261, df=1, p>.05$), 아동의 수줍음 여부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므로($F=7.091, df=1, p<.01$), 아동의 성을 합하여 아동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9>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줍은 아동들은 87.5%, 수줍지 않은 아동들은 62.5%가 낮가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무선표집된 대상 아동들의 낮가림 발생율을 82.4%로 보고한 박은숙(1981)과 비

<표 9> 아동의 특성별 낮가림 경험 유무

구분	수줍은 아동		수줍지 않은 아동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유무	35	87.5	25	62.5
계	40	100.0	40	100.0

교해 보면, 수줍은 아동들은 보다 더 높은 발생율을 보인 반면에 수줍지 않은 아동들은 보다 낮은 발생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아의 인지능력이 발달됨과 더불어 유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낮가림이 몇 년후에 나타나는 수줍음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아기에 낮가림을 보였던 아동일수록 훗날 수줍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10>에서와 같이 아동의 수줍음 여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였던 낮가림의 강도를 살펴보면, 수줍은 아동들 가운데 32.5%가 낮가림을 심하거나 아주 심하게 하였다고 나타난 반면, 수줍지 않은 아동들 가운데는 겨우 2.5%만이 그에 속하였다. 이로써, 낮가림의 강도는 그 경험여부에 비해 훗날의 수줍음을 훨씬 명백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아기에 낮가림을 심하게 경험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훗날에 수줍음을 보이기가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낮가림 경험 유무 및 강도와 수줍음 간에 대하여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사회성

수줍음과 사회성간의 관계가 동일한 연속선상의 양극단적인 개념인지 혹은 구별된 서로 다른 개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양자간의 관계가 $r=-.45(p<.001)$ 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r=-.30$ 정도를 보고한 Cheek과 Buss(1981)에 비해 다소 높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수줍음과 사회성은 양자간에 역상관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나, 그

〈표 10〉 아동의 특성별 낮가림 경험유무 및 강도

구 분	수줍은 아동		수줍지 않은 아동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하지 않았다	5	12.5	15	37.5
약간 하였다	10	25.0	17	42.5
보통정도로 하였다	12	30.0	7	17.5
심한 편이었다	9	22.5	1	2.5
아주 심하였다	4	10.0	0	0.0
계	40	100.0	40	100.0

〈표 11〉 낮가림 경험 유무 및 강도와 수줍음

구 분	Chi-Square	자유도	유의도
낮가림 경험 유무	5.40	1	.02*
낮가림 강도	18.53	4	.001***

* p<.05, *** p<.001

렇다고 해서 양자가 동일한 특성으로 된 연속선상의 양극단적 성격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표 12〉에서와 같이 수줍음과 사회성에 관한 문항들의 요인 분석에서 두 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표 12〉 문항들의 요인분석 산출표

문항내용	요 인	아이겐값	공통변량(Pct of Var)	누적율(Cum Pct)
수줍음	요인1	11.64	55.4	55.4
사회성	요인2	1.74	8.3	63.7

〈표 13〉 부모의 수줍음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수줍음

구 분	df	MS	F
아버지의 수줍음(A)	1	1.168	6.650**
어머니의 수줍음(B)	1	4.723	26.888***
아동의 성(C)	1	.187	.306
A * B * C	1	.486	.101
오 차	66	.176	

*** p<.001, ** p<.01

〈연구문제 4〉 부모의 수줍음 및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

부모와 아동간에 아동의 성에 따른 수줍음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3-Way Anova를 시행하였다. 〈표 13〉에서와 같이, 아동의 수줍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수줍음, 어머니의 수줍음, 그리고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F=2.767, df=1/66, p>.05)와 아동의 성(F=1.066, df=1/66, p>.05)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의 수줍음과(F=6.650, df=1/66, p<.01) 어머니의 수줍음은(F=26.888, df=1/66, p<.001)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수줍음은 성에 관계없이 부모의 수줍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수줍다고 하더라도 수줍음을 나타내기가 쉬우며, 부모 모

〈표 14〉 부모의 사회성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수줍음

구 분	df	MS	F
아버지의 사회성(A)	1	.653	.185
어머니의 사회성(B)	1	1.947	8.111**
아동의 성(C)	1	.003	.011
A * B * C	1	.026	.106
오 차	53	.240	

** p<.01

두가 수줍음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역시 수줍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어머니는 수줍은 아동을 가지기가 쉽다는 Daniels와 Plomin(1985)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련성을 <표 14>와 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 보았다. 아동의 수줍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회성, 어머니의 사회성,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와($F=106, df=1/53, p>.05$) 아버지의 사회성($F=185, df=1/53, p>.05$)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사회성($F=8.111, df=1/53, p<.01$)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덜 보일 수가 있다.

<문제 5> 자녀의 수줍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들이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에 대한 개방식 질문을 하였다. 어머니들이 보고한 응답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표 15>와 같다. 수줍은 아동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전체의 47.5%에 속하는 것을 볼 때, 거의 1/2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수줍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이 발달과정 중의 하나이거나 별로 걱정스럽지 않다고 반응한 25.5%의 어머니들을 제외한다면, 결국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수줍음을 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자녀의 수줍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반 응 내 용	빈 도	백분율
발달과정중의 하나이다	2	5.0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8	20.0
걱정스럽다	19	47.5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5	12.5
나아지리라고 생각한다	6	15.0
계	40	10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각 문제별로 얻어진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수줍음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첫돌이 되기 이전부터 만 4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시기들 가운데 3년~3년 6개월의 시기에 수줍은 아동들의 45%가 수줍음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발생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볼 때, 다수의 아동들이 이 시기에 수줍음을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머니들의 수줍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들은 보통 만 1세 이전에 나타나는 낯가림을 수줍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와, 양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어머니들은 아동이 乳兒期에 낯가림을 보였던 것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줍음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수줍음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아동이 처음 낯가림을 하였던 시기로 응답할 수가 있다. 반면에, 후자의 어머니들은 양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낯가림을 시작한 시기와는 무관하게 대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낯가림의 종료시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Mussen과 동료들(1979)은 그 시기를 12~15개월로, 정영숙(1976)은 이 보다 늦은 시기인 3세경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낯가림이 아무리 늦어도 3세경에는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낯가림과 수줍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면 수줍음의 발생시기는 적어도 3세 이후로서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3년 미만의 시기에 포함된 아동들의 어머니들은 낯가림과 수줍음에 대하여 모호한 구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줍음의 발생시기에 관한 문제는 어머니들의 회상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줍음의 발달적 추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연령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당시에 보이는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이 수줍음을 가장 심하게 나타낸 시기

를 살펴보면, 3년경부터 점차 증가하여, 4년~5년미만의 시기에 가장 많은 아동들이(40.5%) 포함되었다. 대상아동들의 평균연령이 58.5개월임을 고려해 볼 때, 아동들은 조사 당시에 수줍음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최근의 일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거나, 혹은 대상 아동의 최고 연령에 속하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수줍음의 강도에 대한 문제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 보다 연령이 좀더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2. 아동의 출생순서는 아동의 수줍음과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기질적인 일치성에 의해 부모의 수줍음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간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백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이 받은 교육경험도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이 없었다. 아동은 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에 관계없이 수줍음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기질적인 영향력을 다시한번 시사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동의 수줍음이 교육기관에 다님으로써 감소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줍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들로서 보다 명백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낮가림과 사회성을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시켜 살펴 보았다. 낮가림 경험 유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동의 수줍음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수줍은 아동들의 87.5%와 수줍지 않은 아동들의 62.5%가 낮가림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박은숙(1981)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이 아동들의 80% 정도가 낮가림을 경험한다고 한 점과 비교할 만하다. 선행연구들이 아동을 무작위로 선정한 점을 고려해 보면, 수줍음이라는 특성에 따라 임의로 구분된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수줍음 여부에 따라 낮가림을 보다 많이 경험하였거나 혹은 덜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낮가림의 강도를 살펴보면, 수줍지 않은 아동들의 2.5%만이 낮가림을 심하게 경험한 반면에, 수줍은 아동들은 32.5%가 이에 속하였다. 따라서 수줍지 않은 아동들은 낮가림을 경험하더라도 대부분 약한 정도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낮가림의 경험 유무 및 강도와 수줍음간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낮가림이 훗날의 수줍음을 강력하게 예측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수줍음을 타고난 기질적인 특성으로서 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낮가림과 수줍음을 서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즉, 낮가림을 기질적인 측면과 관련시키거나, 혹은 수줍음을 인지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시켜서 양자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모색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다음으로 살펴본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과 $r = -.45$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성과 수줍음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양극단적인 특성으로 본 Kagan과 동료들(1989)과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줍음은 사회성과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별개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즉, 수줍음을 보이는 모든 아동들이 반드시 낮은 사회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아동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성이 낮을 수가 있다. 수줍음과 사회성이 별개의 특성으로 나타난 것은 Buss와 Plomin(1984)과 일치하였다.

4. 부모의 수줍음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즉,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수줍음을 보일 경우, 아동은 수줍음을 나타내며, 부모 모두가 수줍음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도 수줍음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써, 아동의 수줍음은 부모의 수줍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기질적인 일치성을 강조할 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사회성과는 달리 어머니의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덜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동과 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하여 아동의 행동특성에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어머니 역할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의 기질을 아동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기질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때, 추후의 연구는 기질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소들이 아동의 수줍음에 미치는 영향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5.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수줍음이 없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수줍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의 소극적인 생활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아동의 수줍음은 부모에게 물려 받은 기질적인 특성이라는 견해에서 볼 때, 수줍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아동이 가진 특성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에게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를 경험시킴으로써 아동의 수줍음으로 인해 박탈될 수도 있는 생활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연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본 연구는 수줍음을 주로 기질적인 측면에 제한시켜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을 보다 강화시킨 연구가 요구된다. 즉, 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기질에 따라 제공되는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 또한 여러가지 환경변인들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수줍음에 있어서의 유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개선의 문제가 요구된다. 수줍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양식인 점에서 볼 때, 실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서는 보다 집중적인 심층연구 및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줍음이라는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박은숙, "어머니의 양육차원이 한국유아의 낮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 정영숙, "한국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3) Broberg, A., Lamb, M.E., and Hwang, P., "Inhibition: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Sixteen-to Forty-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990, 1153-1163.
- 4) Buss, A. H.,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1980.
- 5) Buss, A.H. and Plomin, R., "The Inheritance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41, 1973, 513-524.
- 6) ———,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84.
- 7) Caspi, A., Elder, Jr., G. H., and Bem, D.J.,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988, 824-831.
- 8) Cheek, J.M. and Buss, A. H.,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981, 330-339.
- 9) Clarke-Stewart, K. A., Umeh, B. J., Snow, M. E., and Pederson, J. A., "Development and Prediction of Children's Sociability From 1 to 2½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980, 290-302.
- 10) Daniels, D. and Plomin, R.,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Shy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85, 118-121.
- 11) Fein, G. G., *Chil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8.
- 12) Garcia-Coll, C., Kagan, J., and Reznick, J.S.,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84, 1005-1019.

- 13) Gifford, R., "Sociability Traits, Settings, and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981, 340-347.
- 14) Goldsmith, H. H., Buss, A. H., Plomin, R., Rothbart, M.K., Thomas, A., Chess, S., Hinde, R. A., and McCall, R.B.,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1987, 505-529.
- 15) Hinde, R. A., Stevenson-Hinde, J., and Tamplin, A., "Characteristics of 3-to 4-Year-Olds Assessed at Home and Their Interactions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85, 130-140.
- 16) Kagan, J. and Moss, H. A., *Birth to Maturity*, New York: Wiley, 1962.
- 17)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and Garcia-Coll, C.,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1984, 2212-2225.
- 18) Kagan, J., Reznick, J. S., and Snidman, N.,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987, 1459-1473.
- 19) ———,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988, 167-171.
- 20)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and Johnson, M. O.,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988, 1580-1589.
- 21) Kagan, J., Reznick, S., and Gibbons, J., "Inhibited and Uninhibited Types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1989, 838-845.
- 22) Maziade, M., Boudreault, M., Thivierge, J., Caperaa, P., and Cote, R., "Infant Temperament: SES and Gender Differenc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n a Large Quebec Sample", *Merrill-Palmer Quarterly*, 30, 1984, 213-216.
- 23) Mussen, P.H., Conger, J. J., and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 ed., New York: Harper & Row, 1979.
- 24) Pilkonis, P. A., "Shyness, Public and Private,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45, 1977, 585-595(a).
- 25) ———,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hyness", *Journal of Personality*, 45, 1977, 596-611(b).
- 26) Plomin, R., *Development, Genetics, and Psychology*, Hillsdale, N. J.: Erlbaum, 1986.
- 27) Plomin, R. and Rowe, D. C., *Genetic and Environmental Etiology of Social Behavior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979, 62-72.
- 28) Reznick, J. S., Kagan, J., Snidman, N., Gersten, M., Baak, K., and Rosenberg, A.,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7, 1986, 660-680.
- 29) Rothbart, M. K.,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988, 1241-1250.
- 30) Scarr, S., "Social Introversiveness-Extroversion as a Heritable Response", *Child Development*, 40, 1969, 823-832.
- 31) Snow, M. E., Jacklin, C. N., and Maccoby, E. E., "Birth Order Differences in Peer Sociability at 33 months", *Child Development*, 52, 1981, 589-595.
- 32) Stevenson, M. B. and Lamb, M. E., "Effects of Infant Sociability and the Caretaking Environment on Infant Cognitive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0, 1979, 340-349.
- 33) Thompson, R. A. and Lamb, M. E., "Security of Attachment and Stranger Sociability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983, 184-191.